

박형수 법률사무소
 “고향 주민들의 상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”
 -고성고 24회 졸업
 -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
 -제42회 사법시험 합격



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-50(시외터미널 근처)
 상담문의 Tel : (033) 633-3635



한나라당 박용기 한나라당 손문영 한나라당 안종복 한나라당 정문헌 민주당 송훈석 민주당 신창현 민주당 이동기 무소속 황정기

4·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막 올라

속초-고성-양양선거구, 한나라 4 · 민주 3 · 무소속 1명 출마의사 밝혀 ... 13일 예비후보자 5명 등록



선택 4.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

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속초-고성-양양선거구에서는 저마다 자기가 지역발전의 책임자라고

자처하며 모두 8명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.

〈관련기사 4~6면〉

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에서는 16일 현재 한나라당 손문영 후보와 정문헌 후보, 민주당 신창현 후보와 이동기 후보, 무소속 황정기 후보 등 5명이 등록을 마쳤다. 한나라당 박용기 후보는 19일께 등록하겠다는

의사를 밝혔으며, 현직인 송훈석 의원과 한나라당 안종복 후보는 1월에 등록할 계획이다.

이에 따라 속초-고성-양양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는 한나라당 4명, 민주당 3명, 무소속 1명 등 모두 8명으로 가닥을 잡았다. 그러나 정당 공천 작업이 완료될 경우 실제 출마자는 3~4명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

중앙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쇄신과 통합으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, 지역구에 출마하는 예정자들은 중앙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공천은 지역당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우선 경선에 승리하기 위해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. 한편 본지는 유권자인 주민들

이 입후보예정자들의 면면을 보다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‘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지면토론회’ 등 다양한 기획보도를 마련하고, 내년 1월 30일자 창간1주년 기념호에서는 예비후보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계획이다.

최광호 기자

청간 해변 40년만에 개방 ‘초읽기’

국민권익위, 현장조정회의서 192m 중 132m 개방키로 ... 합참 승인 남아

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청간해변 군 경계용 철책이 철거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에 따라 지난 40년간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의 해변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관광개발에 장애가 됐던 청간정과 청간해변이 앞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 〈관련기사 8면〉

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고성군청 3층 회의실에서 박재영 부위원장과 신청인 김일천 등 청간리 주민대표, 피신청인 조성직 22사단장, 정세철 고성부군수,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.

이날 조정회의에서 ▲군부대는 청간해변에 설치된 군 경계용 철책 192m 중 해수욕장 운용구간이 포함된 철책



청간 해변 철책 철거 지역(사진 왼쪽). 오른쪽은 지난 13일 고성군청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.

132m 철거에 대해 군 요구기준 적합시 적극 협력하고 ▲고성군은 경계용 철책 132m 철거와 철거지역에 경관형 헨스를 설치해주며 ▲강원도는 고성군과 협의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

이날 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은 “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과 관련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3개



월 동안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,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청간해변 군 경계용 철책은 지난 1971년에 설치됐고, 청간리 주민 430여명이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. **원광연 기자**

청간해변 군 경계용 철책 철거 조정 · 합의 내용

가. 육군 22사단장은 청간해변 군 철책 총 192m 중 870부대 앞 132m 해안철책 철거를 검토하여 상급부대(최종 합참)에 승인을 건의하고, 승인 시 고성군이 군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철책철거 및 경관형 헨스 교체설치와 일부철책 이설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.

나. 고성군은 군 승인 시 청간해변 철책철거(132m) 승인 후 육군 22사단장이 요구하는 기존 철책철거(132m) 및 경계력 보강 대체시설인 경관형 헨스 교체설치(210m)와 일부철책 이설(60m)공사를 예산확보 후 시행한다.

다. 강원도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 등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청간해변 철책철거 및 이설과 경계력 보강을 위한 대체 설치비용 중 고성군이 건의하는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한다.

라. 청간리 주민대표는 향후 청간해변 군 철책 추가 철거 등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는다.

마.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경계철책철거 및 경계력 보강 대체시설설치를 청간리 주민대표와 육군 22사단장 및 고성군과 강원도가 협력하여 완료하도록 사후관리한다.

※본 조정 · 합의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없다.